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10월 10일(목)

윤석열 대통령,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

태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 개최

- 교역투자, 전기차, 방산 분야 협력 확대 추진 -

- 한-아세안 「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」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약속 -

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현지 시간 10/10, 목) 「패통탄 친나왓(Paetongtarn Shinawatra)」 태국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

※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올해 9.6. 취임

대통령은 패통탄 총리가 지난 9월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, 총리 재임 기간 중 교역, 투자, 전기차, 국방, 방산, 인적교류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 또한, 대통령은 올해 협상을 개시한 <한-태 경제동반자협정(EPA)>이 조속히 체결되고, <한-태 합작산업단지>가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패통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대통령은 현대차의 태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 등 청정에너지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고,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, 방산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패통탄 총리는 국방, 방산 협력 등 활발한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,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하고, 이를 위해 신임 총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. 패통탄 총리는 <한·태 경제 동반자 협정>이 조속히 협상,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면,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지속 힘쓰겠다고 했습니다. 아울러, 소프트웨어 강국인 한국과 문화 분야 교류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이번 한-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<한-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>가 수립되어 한-아세안 협력 강화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했습니다. 대통령은 태국이 한-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한-아세안 협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으며, 패통탄 총리는 한-아세안 간 전략적,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

※ 태국은 24.8월-27.7월 간 한-아세안 대화조정국 역할 수임. 끝.